

“값으려거든 사회에 값아라” 진정한 어른 김장하 발자취

김현지 감독 다큐 ‘어른 김장하’

광주독립영화관서 관객과의 대화

수익금, 사회에 환원 ‘지역 독지가’

문형배 전 현재 권한대행에 장학금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나에게 주었으니 값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값아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로 계기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그에게 장학금을 주고 지원한 김장하(81) 선생의 이야기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김장하 선생은 경남 진주에서 60여 년간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온 지역의 독지가다. 사재 110억여원을 들여 진주 명신고를 설립한 후 국가에 헌납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진주신문 후원은 물론, 여성 인권, 환경,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용히 힘을 보탠 지역의 큰 어른이었다.

김현지 감독의 ‘어른 김장하’는 평생 사회적 약자에게 헌신해온 김장하 선생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다. 지난 21일 저녁 광주독립영화관에서는 상영화와 관객과의 만남(GV)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GV에는 영화에서 김장하 선생을 취재

한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기자가 참석해 관객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이국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이 진행을 맡았다.

지난 2023년 11월 개봉한 이 영화는 최근 넷플릭스 ‘오늘 대한민국의 TOP10 시리즈’ 5위까지 오르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광주독립영화관 상영 역시 시민들의 재개봉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김장하 선생의 삶을 다룬 영화이지만 정작 선생의 인터뷰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나를 우상화하지 말라”며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영화는 김주완 기자가 퇴직하는 장면으로 시작한



‘어른 김장하’ 스틸컷

다. 30여년간 지역 언론사에 몸 담으며 토착 비리를 파헤치는 등 각종 특종을 이어왔던 김 기자는 퇴직 후 “좋은 어른을 취재해 널리 알리는 것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라며 김장하 선생을 취재하기로 결심한다.

김 기자의 방문 당시, 김장하 선생은 “백수라면서요?” 하고 웃으며 먼저 말을 건넨다. 하지만 “지금까지 몇 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는가”, “지원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같은 질문에는 입을 꼭 다물고 만다. 결국 김 기자는 선생의 주변인들을 만나며 그의 삶을 하나씩 짚어 나가기로 한다.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지난 21일 저녁 ‘어른 김장하’ 상영화와 GV가 진행됐다. 영화에서 취재를 담당한 김주완 기자(왼쪽)와 이국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어른 김장하’ 스틸컷

“보통 기자가 취재에 돌입하면 일반인들은 피하거나 부담스러워하기 마련인데, 김장하 선생 이야기를 꺼내자 그렇지 않았다. 다들 ‘잘했다, 꼭 알려야 할 분이다’라며 기꺼이 취재에 도움을 줬다”고 김 기자는 당시를 떠올린다. 결국 주변에 소문이 나면서 김장하 선생 주변인들이 식사 자리마다 불러줬다는 것이다.

동네 주민들과 한약방 직원, 명신고의 옛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김장하 장학생’들까지. 모두가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며 “그분을 떠올리면 내 삶이 부끄러

워진다”고 입을 모았다.

김장하 선생은 “내가 돈을 벌었다면, 결국 아프고 괴로운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번 것이다.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 차곡차곡 모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필요하면 고등학교, 대학교는 물론 대학원까지 지원하고 생활비와 용돈까지 주면서도 “공부 열심히 해라”는 등 잔소리는 일절 하지 않았다.

2022년 5월, 한약방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은 한 장학생이 찾아와 “장학금을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장하 선생이 “그런 것을 바란 적 없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며 담담히 말하는 장면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

김 기자는 그 점이 바로 어른과 궂대의 차이라고 짚었다. 궂대는 말로 상대를 가르치려 하지만, 어른은 말을 아끼고 행동과 삶 자체가 모범이 되는 이를 가르킨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를 여러차례 봤다는 한 관객은 “새삼 영화관에서 보니 안 보이는 장면이 보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김장하 선생을 생불이나 신으로 묘사했지만 한편으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많이 외로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김장하 선생께 강상호 열사가 롤모델이듯, 젊은 우리에게도 아직 선생님 같은 어른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속내를 투영한 새가 되다’

정선 초대전, 27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

회화사에서 ‘새’는 다양한 의미를 상징한다. 자유와 평화, 또는 절대 가치로 표상되기도 한다. 푸른 하늘을 걸립이 없이 나는 새는 그 자체로 자유다.

정선 작가의 작품 속에는 새가 날고 있다. 그러나 육안으로는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 심미안으로 눈으로만 볼 수 있다. 작가는 자신의 심상을 새라는 생명체에 감정이입해 훨훨 날아가고자 한다. 그 날아가는 대상은 어머니이다.

오는 27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에서 열리는 정선 작가 초대전 ‘훨훨 날다’.

‘속내를 투영한 새가 되다’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작가는 영원한 그리움과 안식의 대상인 어머니를 향해 날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했다.

인간의 내면에는 원초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이 드리워져 있다. 수구초심과 같은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오방색을 수십 번 덧칠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냈다. 화폭에는 담대하게 한 마리 새가 돼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여정이 추상적으로 펼쳐져 있다. 관객들은 작품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한마리 새가 되어 어딘가로 날아가는 상상을 하게 된다.

최준호 호심미술관장은 “정선 작가의 ‘훨훨 날다’전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기 마련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전시”라며 “각박하고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어머니와 새로 상징되는 평안과 자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선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아트페어, 국내외 그룹초대전 등 다수 전시에 참여했으며 현대미술 에보프, 광주미협, 그룹터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훨훨 날다’

광주 이에은 감독 ‘베이비!’,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초청

한국경쟁부문…24·26일 상영

‘영화의 힘’로 꼽히는 광주에서 영화인의 꿈을 키워온 청년들이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에 따르면 광주영화학교 출신 이에은 감독의 단편영화 ‘베이비!’가 제42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BISFF) 한국경쟁부문2에 공식 초청됐다.

올해로 42회를 맞은 BISFF는 1980년 시작된 국내 최초의 단편영화제로, 경쟁부문 최우수작이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단편 부문 후보로 자동 추천되는 등 국내외 영화계에서 명성이 높은 영화제다.

이에은 감독은 제1기 광주영화학교 단편영화 제작 워크숍을 통해 영화 연출을 배웠으며, 광주의 차세대 영화감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예다.

‘베이비!’는 하키코모리인 주인공 유성이 옛 연인으로부터 곧 출산을 앞뒀다는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된다. 세상과 단절된 유성이 조금씩 바깥세상으로 걸어 나가는 과정을 섬세한 심리 묘사와 독창적인 앵글로 그려낸 단편영화의 매력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작품은 광주독립영화제의 고릴라펀드 지원을 받아 지난해 제작됐다.



BISFF 경쟁부문에 공식 초청된 이에은 감독의 ‘베이비!’ 스틸컷.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제공〉

‘베이비!’는 121개국 5350편의 출품작 중 한국 경쟁 부문(총 20편)에 선정되는 패거리를 이뤘으며, 오는 24일과 26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이상훈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사장은 “이에은 감독의 BISFF 경쟁 부문 초청은 광주영화학교의 성과이자, 광주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라며 “광주 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영화학교는 지역 청년들의 영화제작 꿈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개설된 영화 제작·기획 교육과정으로, 올해 교육은 다음달 개강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신안선 관련 기록물 디지털로 남긴다

故 한석홍 작가 자료 등 4천여 건

신안선은 1323년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무역선으로, 1975년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한국 최초의 수중발굴조사로 2만 70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됐으며, 수중문화재 발굴과 보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신안선의 선체 등은 현재 해양유물전시관에 전시돼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발굴 선박인 신안선 관련 기록물을 포함한 해양유산 기록물들이 디지털화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최근 한국문화정보원과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구축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한국 수중고고학 50주년을 맞아 해양유산 기록물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연구·전시·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고(故) 한석홍 작가의 기증 자료를 포함한 신안선 관련 기록물 4000여 건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된 기록물들은 내년 초 온라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해양유산연구소는 지난 7일 문화유산 전문 사진작가 한석홍 선생의 유족으로부터 1980~1990년대에 촬영된 신안선 관련 원본 필



고(故) 한석홍 작가의 유족이 기증한 신안선 촬영 기록물.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제공〉

름 765점을 기증받았다. 협약을 통해 기증된 자료들을 일반 시민과 공유한다는 의미가 더해졌다.

이은석 해양유산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유산 기록물의 디지털 전환과 개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누구나 쉽게 해양유산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GB 작가탐방’ 두 번째…정명숙 작가와의 대화

5월1일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정명숙 작가는 시간의 축적, 삶의 기억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왔다. 작품 속 오브제는 동그라미, 큐브, 자연을 상징하는 것으로 삶의 부분들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그려왔다.

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직무대행,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이상갑)는 ‘GB 작가탐방’ 두 번째 시간으로 정명숙 작가와의 만남을 마련했다. 오는 5월 1일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조선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정 작가는 동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석사를 거쳐 미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설치를 비롯해 드로잉, 종이 오리기 등을 매개로 혼합매체 작업을 펼쳐왔다.

이번 탐방에서는 정 작가의 작업과 작품을 모티브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갑 직무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그림모내기’

‘월레회’ 형식의 ‘GB 작가탐방’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시민이 만나 예술과 작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행사 정 작가의 인터뷰 영상이 광주비엔날레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